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① 어린이 주일: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훈육과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성경공부: 화요 성경공부에 많이 신청바랍니다.

개강일: 5월 17일(화) 시간: 7시 30분 ~ 9시  
장소: Duke Institute (12-14 Huron St, Takapuna)  
강의 과목: 기독교적 세계관 (12주, 심장진 목사)  
성경탐구 40일 (15주, 이태한 목사)

③ 수요일예배: 이번 주부터 설교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④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신청바랍니다.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⑥ 월례회: 부부선교회, 1, 4 남선교회, 4 여선교회 월례회(기도회)가 있습니다.

⑦ 음악교실: 피아노반, 풀룻반, 챔버반을 모집합니다.(선착순)

기간: 2011년 5월 13일(금) ~ 7월 1일(금)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 7시 10분 장소: Chapel Room  
문의: 940-3381, 369-5077(교회) 등록비: 30불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 5월 교회일지

어린이 주일 (유아세례식):  
5월 1일 (주일)



아버지 주일:  
5월 8일 (주일)

이삭줍기주일:  
5월 22일 (주일)

## 교우 소식

이사: 권인찬, 원미경집사 5-13 King Edward Avenue, Epsom 전화 630-4886

## 5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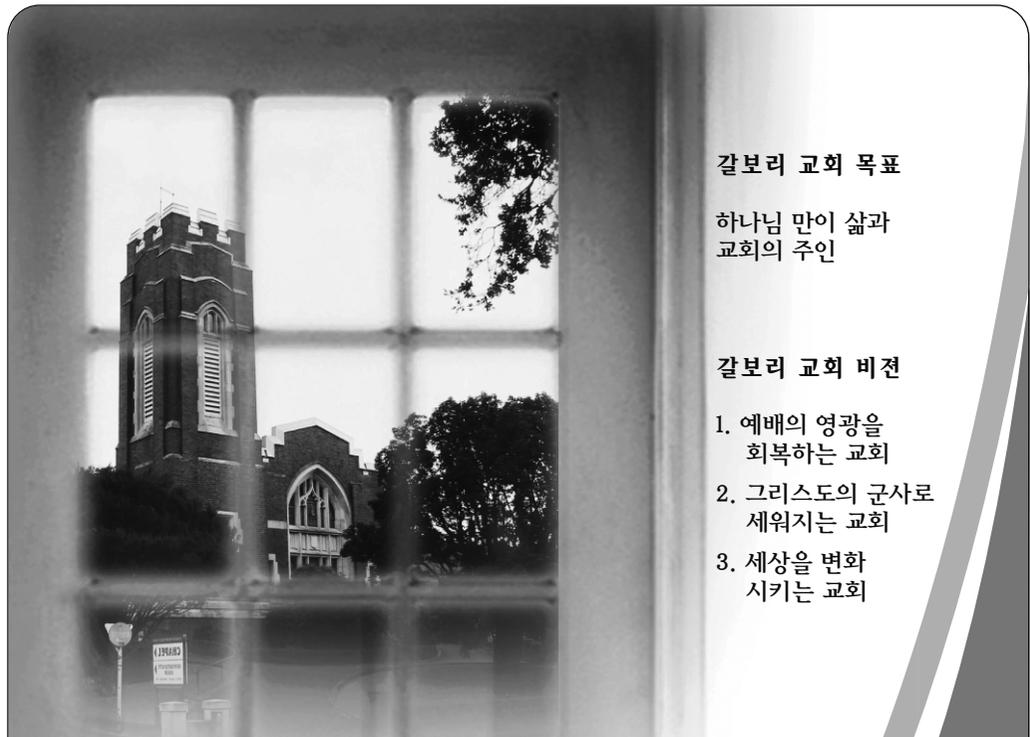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1일	고성일	최장한	김인희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8일	이동술	김성희	김재연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5일	최득수	김정민	정진택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2일	박일영	김이삭	김정옥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9일	김영길	진혜령		박병민/이기중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자유함의 영이 풍성히 임하도록 (김기섭, 김경수등)
2. 교회의 다음 세대이며 세상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건전하게 자라고 영적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3. 기쁨과 자원하여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간에 이해와 사랑 더 풍성한 갈보리 공동체가 되도록
4. 가정안의 여러 어려움들을 주의 은혜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성숙한 부모들이 되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장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재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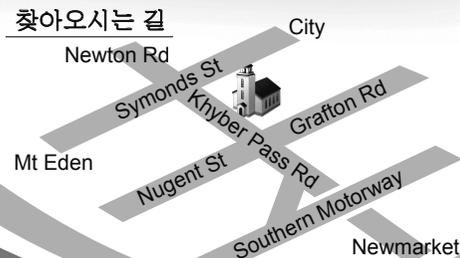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어린이 주일  
2011년 5월 1일

주보 13권 18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를	마가복음10:14-16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4장 (구 30장)
*성서교독	96 어린이 주일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61장 (구 195장)
대표기도	최득수집사
성경봉독	출애굽기 2:1-10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민음의 부모
찬송	570장 (구 453장)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이동술 집사 5월 15일: 고성일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11명 2부 17명 학생부 20명 아동부 13명 유아부 10명 총계171명

건축헌금  
지난주: \$100.00  
총계: \$591,859.97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최장한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민수기 16:1-5	인도자
설교	주님이 보여주시리라!	심창진목사
찬송	나의 안에 거하라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김성희집사

##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김인희집사
기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1:5-8	다함께
설교	영광을 바라보라	이태한목사
찬송	135장 (구 222장)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조은희집사  
다음 수요일기도: 김재연집사

## 갈보리 컬럼

우리 집은 달동네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집이 하도 좁아 라면 상자라고 하지만 라면 상자보다는 좀 큼니다. 할머니와 어머니 나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밤에 잘 때는 네 식구가 다 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직장으로 나가는 솔집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새벽같이 오십니다.

집이 좁은 것은 괜찮은데 참기 힘든 것은 화장실입니다. 동네 화장실에는 아침마다 긴 줄이 늘어는데 볼 일이 급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한 학교에 가서 볼 일을 봅니다.

엄마는 이따금 술을 잡수시면 읍니다. 같이 죽자고 우십니다. 나는 그 소리 가 제일 무섭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니다.

나는 교회에서 주는 계란을 안 먹고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니다. 하나는 할머니를 드렸고 하나는 엄마를 드렸습니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전도라는 것을 해 봤습니니다.

“엄마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대.”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니다. “야 이놈아,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해라. 구원은 무슨 말라빠진 구원이냐. 지금 집주인이 방세 5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데, 쫓겨나게 생겼어. 예수 믿으면 돈을 주나 쌀을 주냐? 너희 예수님이 50만원만 준다면 교회 나가서 춤을 추겠다.” 그러시더니 술을 마시며 또 우셨습니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교회 나가서 기도했습니니다. “예수님,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50만원 생기면 교회 나온대요. 그런 게 어딴여요. 돈이 안 생겨도 우리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네?” 며칠 후였습니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이 글짓기 대회가 있다고 했습니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용육이 네가 글을 잘 쓰니 이번 백일장 대회에 나가라” 고 하셨습니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선생님 손을 잡고 덕수궁이란 곳을 갔습니니다. 나는 그곳에 앉아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글을 썼습니니다. 나는 우리집 이야기를 썼습니니다. 코딱지만한 우리 집 이야기도 썼고, 할머니 이야기, 동생 이야기도 썼습니니다. 술만 마시면 우는 엄마 이야기도 썼고 사업이 망해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 아버지 이야기도 썼습니니다. 엄마가 술집에 나간다고 홍보는 친구들 이야기도 썼습니니다.

며칠 후에 발표가 났아보습니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그 글짓기 대회에서 내가 일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니다. 내가 타 온 상장과 상품을 보시던 엄마는 나를 껴안고 막 우셨습니니다.

좋은 일인데도 엄마가 자꾸 우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니다. 나는 겁이 떨걱 났습니니다. 엄마가 또 같이 죽자고 할까봐 무서웠습니니다.

그날 저녁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니다. 글짓기 심사위원을 하신 동화작가 선생님이시라고 했습니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엄마에게 내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니다. 그리고는 씩씩하게 살아가라며 동화책 다섯 권을 선물로 내놓고 가셨습니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동화책을 전부 다 읽기 시작했습니니다. 그런데 동화책을 읽다보니 책갈피에서 웬 봉투가 떨어졌습니니다. 이게 무슨 봉투일까? 편지 봉투 안에는 하얀 쪽지가 들어있습니니다. 무엇인지 몰라 엄마에게 보여주시니 수표라고 했습니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표는 50만 원짜리였습니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니다. 이번에도 엄마는 나를 껴안고 우시는 것 이었습니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니다. 이상스럽게 엄마는 아주 곱게 화장을 하고 옷을 차려 입으시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니다. 그러더니 내 손을 잡고는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니다. “어디 가지게요?” “너희 교회 가자. 50만원을 주신 예수님께 인사하러 가야지.”

그날, 교회에 나가신 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니다.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랍니니다...

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한 어린이의 일기문에서

